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Ecotopia and Ecopoetics

송용구(고려대학교 독일문화연구소 전임교수)

1. 성경에 나타난 에코토피아의 형상
2. 이성만능주의(理性萬能主義)와 자연파괴
3. 기술문명의 두 얼굴
4. '생태시'의 발생과 성격
5. 생태주의(生態主義)와 시
6. 민중문학에서 생명문학으로
7.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Abstract

by Yong-Ku Song

‘생태시’에서 추구하는 생태학적 대안사회(에코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독자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의식과 지배의식을 동반자적 의식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견지하고 있다. 독자들의 인간중심적 패러다임을 생명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테마를 중심으로 논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생태시’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산업발전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가속 현상, 대도시의 환경오염 현상, 도시인들의 물질적 가치관 등이 ‘생태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시인들의 자연관이 동시대(同時代)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시 속에 내포된 자연관, 주제의식, 표현방식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생태시’가 낭만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현대적 리얼리즘에 부합될 수 있는 특징들을 규정하고 있다.

3. ‘생태시’에서 나타나는 테마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테마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생태학자이자 문학연구가인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 타쉬(P. C. Mayer Tasch)의 견해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생태시’의 저항의식이 시인과 독자의 연대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환경보호운동과 '생태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4. 문학작품에 나타난 생명친화적 의식을 통하여 시인과 독자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물질적 매커니즘에 대한 비판의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 생명친화적 의식을 노래하였던 대표적 작품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새로운 참여문학의 성격과 범주를 제시해보았다.

5. 특히 제1장에서는 기독교적 생명관(生命觀)을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 생태시를 분석하였다.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기에 피조물들을 소유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생태시의 모델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식의 원천임을 강조한 것이다.

Jetzt ist die Lyrik in ganzer Breite zum Propagator der gemeinschaftlichen Wehr geworden. Begriff der Oekolyrik ist weit mehr. Der kollektive Protest gegen eine nicht nur Unbehagen auslösende, sondern in ihren Ursachen einsehbare und damit notwendig politisierbare Schädigung komplexer Bedingungen und Möglichkeiten des Lebens. Dabei ist der Stellenwert von Kultur im Verhältnis zu der noch unter der Rezeption der Ästhetik der Kunstepoche stehenden Naturlyrik verändert, ja gossenteils in Frage gestellt. Das gesamte gedankliche Verfahrensmuster von Vermittlung das sich in Verklärung und Aufhebung, Paradoxalität und Symbolik zu differenzieren vermochte, ist als historisch und politisch, also auch ästhetisch wirkungslos verstanden. Dem entspricht die Direktheit der Protestdichtung - deren

Indirektheit in sofort sozial auflosbarer Satire besteht. Die Vor-Bestaende des Wissens, auf die sich kritische Naturlyrik, die damit politische Lyrik wurde, einlaesst, koennen nicht mehr jenen Prozess einer Erfahrungsbildung tragen, der in der Struktur erlebnishafter, entdeckungshafter, innovationshaltiger lyrischer Vollzuege der aelteren Aesthetik enthalten war und zwingenden Nachvollzug forderte, sollte ein uebers blosser Verstaenden hinausgehendes Verstaendnis eintreten.

1. 성경에 나타난 에코토피아의 형상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합리주의 및 계몽주의와 함께 적잖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기독교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릴만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¹⁾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神이 이미 명시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KJV) 이후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행위와 지배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킹 제임스 버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 subdue it :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upon the earth”²⁾라고 성경의 원문을 번역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정복과 통치를 명시하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도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내고 있다. 두 나라의 성경 번역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기독교의 神이 인간을 자연의 동·식물 보다 우위에 두었으며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의 神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상하관계, 수직관계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해지는데는 것이다.

창세기에 대한 이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인간중심주의를 파급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1967년 린 화이트는 자신의

1.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3, 2쪽.

2.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1989, 2쪽.

논문에서 오늘날 생태적 위기를 낳은 인간중심주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라'고 했던 기독교의 성경 창세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린 화이트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생태파괴와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는 견해는 적잖은 동조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기독교가 인간중심주의를 낳았다는 지배적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번역상의 미흡함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기독교와 환경문제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후 현대의 독일어 성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명시된 '정복'과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말하고 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神이 '물고기와 새들과 그 밖의 모든 생물들을 보호할 책임을 너희 인간들에게 맡긴다(Ich setze euch über die Fische, die Vögel und alle anderen Tiere und vertraue sie eurer Fürsorge an)'³고 번역되어 있다. 영어 성경 및 한글 성경과 비교해볼 때 내용상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어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의 神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화한 것도 아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양분을 자연으로부터 가져올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청지기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탁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더불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인간에게 명령한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의 神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相生)의 울타리 안에서 동등한 생존권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옹호

3.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82, S. 4.

하고 있다는 견해는 성경에서 객관적 근거를 얻는다. 로마서 8장 21,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동물과 식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⁴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독일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의미의 연결성을 갖는다. 태초에 神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지기의 권한을 망각하고서, 인간이 자연을 노예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주인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神은 인간의 손에서 동·식물을 구원하여 이들에게도 영생(永生)의 권한을 인간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다. 동식물을 神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들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낙원을 건설할 계획을 암시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쥔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떼는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이사야서 11장 6-9절)⁵

이사야서 11장에서 기독교의 神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젖 떼는 아이가 살무사의

4.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3, 212쪽.

5. 같은 책, 868쪽.

굴에 손을 넣는다'는 묘사에서 드러나듯이,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미래의 이상향은 생태학적 낙원인 에코토피아와 일치하고 있다. 에코토피아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혜택과 보호를 주고받는 상호 의존(相互依存)의 세계를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자연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보살피려는 세계. 바로 이러한 세계를 일컬어 에코토피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암표범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암표범이여// 숫사자와 농구리와/ 두꺼비와 독나비/ 모두가 모두 내 새끼 같은/ 내 새끼 같은 사랑이여// 암표범을 쓰다듬어/ 자장갈 불러 잠재우고/ 숫사자들을 나란히 거느리고/ 산책을 한다.// 농구리와는 햇볕에 누워/ 창세기를 읽고/ 독나비 내려를/ 이마로 먹고/ 폭포 앞에 가/ 씻는다.⁶ - 박두진의 「인간밀림」중에서

1963년에 발표된 박두진의 시 「인간밀림」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생명의 낙원을 회복하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이 그리워하는 낙원은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구릿빛 적나'의 몸뚱이를 빔내며 '표범', '사자', '두꺼비', '농구리'와 함께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명(命名)의 권한을 부여 받은 아담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을 허물고 한 가족을 이룬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뒤 그들을 향해 "모두가 모두 내 새끼 같은/ 내 새끼 같은 사랑이여!"라고 말한 것은 피조물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천명하는 발언이 아니다. 피조물들을 '내 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우월의식 혹은 지배

6. 박두진: 『예레미야의 노래』, 창작과비평사, 112~113 쪽.

의식을 포기함을 의미하며, 오히려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을 가족과 혈육으로서 포용하는 동질감을 나타낸다. 아담은 ‘암표범, 숫사자, 두꺼비, 능구리’를 하나님의 낙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상생(相生)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능구리와는 햇볕에 누워/ 창세기를 읽는다”는 아담의 발언에서 동식물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인간의 형제로 인정하는 생명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시인 박두진이 그리워하는 태초의 에덴 동산은 ‘생명권(a right to life)’의 평등이 실현되는 에코토피아의 현신(現身)인 것이다.

시인은 인간의 조상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상생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던 에코토피아를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에코토피아를 향한 시인의 예찬은 이미 사라져버린 이상향을 환상의 세계로 변용(變容)시켜 스스로 피안 속에 안주하려는 낭만주의적 현실도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낙원(失樂園)을 향한 예찬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파괴시킨 문명의 폭력을 극복하려는 저항의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밀림은/ 고독한 밀림/ 음모와 배신과 시기가 뒤엉킨/ 인간밀림은/ 처절한 밀림/

탐욕과 저주와 살육이 무성한// 인간밀림 모두의 위에/ 억수비가 내려라/
인간밀림 골짜마다/ 불이나 활활 불어라.// 아, 그렇지만 인간밀림은/ 그래도
우리와 나의 사랑/ 모두가 모두 무성하며/ 한 하늘 아래/ 수련대는// 인간밀림
하늘에서/ 초록비가 내려라./ 인간밀림 하나 가득/ 햇살이 평평 쬐어라.⁷

- 박두진의 「인간밀림」중에서

물질을 소유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음모, 배신, 시기,

7. 같은 책, 114~116쪽.

저주, 살육'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킨다.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기계부품과 다름 바 없는 수단으로 이용해나가는 비정한 세대가 시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만연되어 가는 시대에 자연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시인은 생명의 낙원을 파괴시킨 근본적 원인을 현대인들의 물질적 욕망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욕망이 낳은 인간의 수단화 혹은 자연의 도구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으로써 시인이 에덴 동산의 상생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암표범, 숫사자, 두꺼비, 농구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의 사랑은 생명을 물건으로 전락시킨 물질문명에 맞서는 저항의 힘으로 승화된다.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가족과 형제로 예찬하는 서정적 예술방식이 현대인들의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여 그들의 인간중심주의를 생명중심주의로 바꿀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두진의 「인간밀림」은 생태파괴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인들의 물질적 욕망과 기계문명의 폭력을 무디게 하려는 저항의 방식으로써 생명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박두진의 시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펼쳐지던 에덴 동산, 인간과 함께 자연의 생명체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 사건, 로마서 8장에 약속된 피조물들의 영광,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었듯이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꾸어나갈 미래의 '거룩한 산' 등을 근거로 삼을 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8. 송용구: 『현대시와 생태주의』, 새미, 52쪽.

2. 이성만능주의(理性萬能主義)와 자연파괴

18세기 프랑스 및 독일에서 부흥했던 계몽주의 사상은 기독교와 군주제의 권위에 구속되었던 인간의 자아를 해방하고자 했다. 계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기독교의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었다. 봉건적 질서를 이성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는 서구의 정신사(精神史)를 바꾸어놓은 혁명이었다. 그러나 절대적 권위로부터 인간의 자아를 해방시킨 것은 계몽주의의 공적이었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성의 통제하에 지나치게 구속시킨 것은 계몽주의가 낳은 폐단이었다.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났던 인간의 자아는 공교롭게도 이성의 속박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1770년대 독일의 청년 시인들이 ‘질풍노도(Sturm und Drang)’ 운동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해방하고 자아의 회복을 추구한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획일적 태도에 반발하여 일어난 자연발생적 저항이었다. 청년 시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구속하는 태도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본능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다. 이성의 굴레에서 감정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삶은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내면의 풍부한 감정을 놓아주는 모태이자 자유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몽주의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질풍노도’의 운동은 자연친화의 삶을 통해 내면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았던 이성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식에서 철저히 자연을 소외시켰다. 그들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의 바깥에 있는 대상일 뿐이었다. 자연은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 없이 지배할 수 있는 사물에 불과하였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주인으로서 목각인형을 조종하듯 자연에 대한 조작과 통제를 남용하게 되었다. 자연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이성 만능의 사고방식은 자연과 인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상하관계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인간중심주의(人間中心主義)적 사고방식이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견고히 자리잡게 된다. 인간중심주의란,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인 까닭에 자연보다 우월하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집단적 편견이다. 인간의 행복을 명분으로 삼아 자연에 대한 무절제한 수탈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는 현대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낳은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⁹

3. 기술문명의 두 얼굴

이성에 대한 서구인들의 절대적 신뢰와 낙관적 진보사관(進歩史觀)을 증명해주는 대변자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었다.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은 인류의 무한한 발전을 보장하는 증표였으며 타지역에 대한 서구세계의 우월성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과학기술은 제3세계의 국가들까지도 선진화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저개발국(低開發國)의 기술향상과 과학기술의 지원에 대해 논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세계가

9. 송용구: 「새로운 문명운동으로서의 생태시·1」, 시문학 1999. 6. 102~103쪽.

저개발국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활동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만회할 수 있는 보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자원들을 탈취하여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원주민들을 산업의 노동력으로 전환하던 만행의 시대는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식민통치의 시대는 사라지고 서구와 제3세계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전수 받으면서 공영(共榮)을 도모해나가는 협력의 시대만이 전개될 뿐이었다. 서구의 지원을 통해 낙후성을 극복하고 진보를 이룩하려는 것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남미 등 저개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였다. 그리하여 제3세계도 서구의 열강들처럼 물질의 풍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은 종교의 전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저개발 국가들을 사로잡았다. 진보의 일념에서 비롯된 과학기술을 향한 낙관적 신뢰가 그들을 변영의 환상 속으로 인도하였다. 진보의 속도를 가속화함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에 역행하는 배반 행위로 취급당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적 견해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변영의 환상에 사로잡혀 과학기술을 남용해왔던 행위가 오히려 인간의 공동체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지금은 20세기 역사에 대해 많은 비판과 회의(懷疑)가 필요한 때이다. 제3세계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세계의 과학기술을 이전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저개발국의 변영을 위해 기여하는 일인가를 냉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지원 행위야말로 낙후된 국가들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세계의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치적 지배의 판도를 넓혀나가는 행위일 수 있다. 즉, 그것은 식민주의(植民主義)를 종식시키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한 제국주의의 얼굴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의 증거로서,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서구세계로부터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목표했던 물질적 번영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낳은 가장 놀랄만한 성과(?)는 군사무기의 파괴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고성능 전략무기들이 생산됨으로써 이제는 컴퓨터 버턴 하나만 눌러도 지구 전체가 불덩이에 뒤덮일 수 있는 위협을 안게 되었다. 컨테이너 뚜껑을 열고 나온 화마(火魔)가 불과 몇 초만에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종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금과 고급 인력을 투자해가며 핵무기 증강에 열띤 경쟁을 벌여왔다. 제3세계의 국가들은 서구의 과학기술이 낳은 파괴적 무기를 마땅히 배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허울 아래 살상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해 왔다.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의 출현을 경험한 바 있다. 군사정권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 태어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국의 영토를 강대국의 군사기지로 고스란히 내어줄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군사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경제의 종속을 낳게 된다. 내정간섭은 물론 상품의 판매시장마저 잠식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기의 수입을 위해 저개발국들의 국고에서 과도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종속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원조라는 미명하에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도 엄밀히 말하자면 재앙을 부르는 군사기술 및 살상무기의 공급을 의미한다. 결국 제3세계에 과학기술을 이식(移植)하는 행위는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난, 부정부패, 권력

층과 민중간의 위화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과 불안, 군사훈련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낳게 된다.¹⁰

4. '생태시'의 발생과 성격

20세기에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진적 템포를 나타낼수록 자연의 파괴도 가속을 얻는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서구인들은 진일보한 과학기술로 대량 생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화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나가면서 경제적 이윤의 향상을 공동의 목표로 추구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재화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까지도 헌납하였다. 인생의 가치는 물질적 영역으로 이전되었고 물질은 神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서구인들은 재화의 끊임없는 생산과 소유를 통해 미래의 유토피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물질=행복이라는 신화를 스스로 가공해낸 것이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발언은 “나는 내가 소유하고 소비하는 물질에 의해 존재한다”는 말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물질의 소유 및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둔감하였다. 괴물 메두사의 눈부신 빛을 보고 돌덩이로 변해버린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길은 이미 물질의 마력에 모든 감각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조차도 오히려 과학기술의 능력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낙관주의가 그들을 “희생 없는 행복”의 환상에 도취케 만든 것이다.

10. 오토 울리히: 「개발과 기술제국주의」, 《녹색평론》1993. 5-6, 117~133.

서구인들의 물질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써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였던 존재는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희생을 치유하거나 억제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희생을 조장하거나 방치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서구인들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무절제하게 수탈하는 행위들을 반복하였다. 자연의 생식력과 재생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착취 행위가 누적됨으로써 생물의 멸종과 자원의 고갈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인처럼 자연은 지구 곳곳에서 바짝 말라버린 자궁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하여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연을 끊임없이 착취해왔던 행위는 인간과 모든 동식물의 상생 시스템, 즉 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았다.

인간의 노예로서 자연이 감당하는 역할은 자원을 공급하는 일에 제한되지 않았다. 자연은 인간의 산업을 위해 헌신의 명예를 잃어질 뿐만 아니라, 제조와 소비과정에서 배설된 쓰레기들을 끌어안고 썩어가야 하는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의 의무를 강요당한 것이다.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영글어 가던 대지는 농약의 독성에 감염되어 천형병자(天刑病者)처럼 병들어가고, 산그늘이 환히 비치던 강물은 제방처럼 두텁게 쌓여있는 화학물질에 숨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있다. 자연은 몸 속의 불순물들을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재생 능력마저도 상실해버린 것이다. 20세기 중엽 이후 자연은 인간의 의해 소중한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생식력의 고갈과 자정능력의 마비라는 이중적 수난을 경험하고 있다. 상생(相生)의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당하여 불구(不具)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적 사건이 되었다. 인간이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희생은 인간의 미래를 낙원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의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고 있다. 인류의 생존이

철저히 위협받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과 물질을 통한 “희생 없는 행복”의 실현은 신비주의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산성비와 산성눈 때문에 살갗이 갈라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곡식과 과일에 농약이 묻어있지 않을까 의심하며, 산에서 흐르는 물조차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보와 발전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신념 자체가 넌센스로 입증된 것이다.¹¹

1950년대 들어 자연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문학 작품들이 서유럽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작품들은 자연파괴의 현상을 인간의 생존 위기와 결부시켜 현실적 사회 문제로 쟁점화시킨 새로운 유형의 ‘자연시’였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현상을 문학작품의 소재로 수용하기 시작한 이러한 시의 유형을 ‘생태시(Oekolyrik)’ 또는 ‘생태학적 시(oekologische Lyrik)’라 한다. ‘생태시(Oekolyrik)’라는 명칭은 19세기 말 동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 ‘생태학(Oekologie)’과 시(Lyrik)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태학의 시(Lyrik der Oekologie)’를 줄인 낱말이기도 하다.¹² 생태학이란 특정한 유기체와 주변 환경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물, 공기, 흙과 동식물의 상호 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생물들간의 연관 시스템을 밝혀내고 종(種)의 생존 조건을 규명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인식과 생명존중의 철학,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환경보호 운동의 이념이 ‘생태시’의 정신적 기저(基底)를 형성한다.

‘생태시’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명체의 질적 변화를 생태학적·사회적·정치적 인식 및 생명의식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현대시의 한 장르이다. ‘생태시’는 자연의 실상에 대한 현실적

11. 송용구: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창조문학》2001. 봄. 11~15쪽.

12.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외국문학》1990. 겨울. 32쪽.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시이며, 환경파괴의 사회적 원인들을 고발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의식과 개혁의지를 일깨우려는 목적성을 지향한다. '생태시'가 자연에서 소재를 끌어온다는 점, 그리고 인간 대 자연의 관계를 언어화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자연시'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시'는 기존의 '자연시'와 공유점을 가지면서도 자연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큰 변별점을 갖는다. 객관적 시각으로 자연의 실상을 인식하여 자연 대 인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전통적 '자연시'의 낙관적 자연인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생태시'는 비판적 '자연시'이자 새로운 '자연시'라 할 수 있다.¹³

20세기 중엽 이후에 '생태시'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던 지역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의 독일어권 국가들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1950년대 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인간 공동체의 몰락을 우려하는 새로운 시의 움직임이 형성된 후, 1970년대 이후 현대시의 한 조류로서 정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다그마르 닉(Dagmar Nick), 한스 카스퍼(Hans Kasper) 등 소수의 시인들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발표되었지만, 이 시기는 아직 '생태시'의 맹아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문단에서 '생태시'라는 명칭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러한 시의 유형에 관한 개념 규정도 없었으며 이론화 작업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문제를 문학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작가들의 연대의식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태시'는 아직 문학의 장르로서 확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도 없는 단계에 있었다.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전(反戰) 운동과 정치 비판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13.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와 시론」, 《시와사상》2001. 봄, 240~241쪽.

한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환경보호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부터 1970년대 독일의 환경정화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1970년대의 '생태시'는 1950, 60년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작품들과 더욱 다양한 주제의식을 보여주었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양상이 '생태시'의 활성화를 낳은 것이다. '생태시'의 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서, 생태학자이자 문학 연구자인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타슈(P. C. Mayer-Tasch)는 1980년 자신의 논문 「생태시는 정치적 문화에 관한 기록물」에서 처음으로 '생태시'와 '생태학적시'라는 명칭을 제기하였다. 그는 '생태시'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으나, '생태시'에서 나타나는 현실비판적 성격을 진단함으로써 참여문학의 속성을 가시화시키는 문학적 의의를 남겼다. 특히 1981년 그가 편찬한 생태사화집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Oekolyrik 1950-1980』는 1970년대 독일 '생태시'의 부흥을 증명해주는 문학적 성과물이었다. 이 사화집은 독일어권 국가들의 유일한 생태사화집으로서 1950년대 이후 '생태시'의 성격과 변화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집이다. 마이어-타슈는 동독 및 서독·스위스·오스트리아 출신 시인 92명의 '생태시' 206편을 테마의 성격에 따라 제1부에서 제8부까지 다양하게 분류해놓았다. 이 사화집에 실린 작품들 중 약 120여편의 시가 197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1970년대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생태시'의 활성화 시기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비로소 '생태시'는 작가들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문학 장르의 입지를 굳힐 뿐 아니라 하나의 문학운동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14. P. C. Mayer Tasch: 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ünchen 1981, S. 11.

마이어-타쉬의 논문「생태시는 정치적 문화에 관한 기록물」에 따르면, '생태시'는 사실적 언어로써 환경파괴의 실태를 재생하여 자연의 질적 변화를 독자에게 인식시키는 시이며, 자연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독자의 비판의식을 유도하는 시이다. 자연의 타락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낳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이 '생태시'의 자연 인식이다. 이점에서 '생태시'는 파괴된 자연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인식하는 시이며, 환경오염의 원인들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相生)의 출구를 찾아나가는 현실참여의 문학이다.¹⁵⁾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사회현실을 진단하고 자연파괴의 원인을 인간사회의 부조리에서 찾은 것이 '생태시'의 현실인식임을 감안한다면, '생태시' 속에서 시인의 사회의식과 생태의식은 분리될 수 없다. '생태시'는 이러한 통합적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파괴하는 사회현실에 대해 저항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려는 보편적 생명의를 대중의 생활철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5. 생태주의(生態主義)와 시

독일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서유럽의 '생태시'는 정신적 근간(根幹)을 '생태주의(生態主義)'에 두고 있다. 생태주의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상호 동등한 생존권 혹은 생명권(生命權)을 갖고 있다는 평등의식을 나타내는 사상이다. 생태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에

15. P. C. Mayer Tasch: ebd. S. 11~13.

대한 주인의식과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생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파괴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연에게서 혜택을 얻는 보답으로 동식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상호의존(相互依存)의 시스템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相生)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대중의 패러다임과 생활양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자연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자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개발 위주의 정책, 물질만능적 가치관, 소비지향적 생활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경정화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자들은 자연과 인간에게 당면한 실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종(種)이 인간과 동등한 생존권을 지니고 있다는 평등의식을 대중의 생활윤리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평등의식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은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생태주의자들은 서구의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이성만능주의(理性萬能主義)와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격한다. 그들은 이성(理性)의 잣대로 자연을 인간보다 하위에 두는 고정관념을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의식과 주인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과학기술을 통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자들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권(生命權)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그들을 생명공동체(生命共同體)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해야만 미래의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¹⁶

독일어권 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실존의 위기를 증언했던 문학 작품들이 '생태주의' 적 사고방식을 정신적 기저(基底)로 삼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시'는 독자들의 자연인식과 사회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일깨워주고자 했다. 자연을 사람보다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풀꽃 한 송이나 벌레 한 마리를 사람처럼 받드는 사랑의 정신을 진작시키는 것이 '생태시'가 견지해온 궁극의 목적이었다.

도시 안에 또다시
주차장들을 지어야 한다는군.
무너지는 플라타너스 나무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들 곁에 있을 때마다
친구로서 그들을 따듯이 맞아주었거든.
그 시절엔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조차
범죄나 다름없는 일이었지.
나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평화,
나무들에게 깃드는 새들과 바람,
그들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¹⁷

- 발터 헬무트 프리츠의 「나무」전문

16. 송용구: 「에리히 프리트의 생태주의 문학」, 《시와사상》2001, 여름, 209~211.

17. Walter Helmut Fritz: B ume,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75.

1976년에 발표된 시 「나무」에서 발터 헬무트 프리츠(Walter Helmut Fritz)는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조차 범죄나 다름없었던” 자연친화의 시절을 예찬하고 있다. ‘나무’는 인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인생의 반려였던 까닭에 사람들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빠짐없이 화제로 등장했으며, 따라서 ‘나무의 뿌리’에 관해 이야기를 그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과거를 그리워하던 시인은 ‘나무의 뿌리’가 전기톱으로 잘려나가는 행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세대의 변화를 안타까워한다. 그는 ‘나무를 친구로서 맞아주었던’ 상생(相生)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의 동식물을 인간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다. 스위스의 여류 시인 페레나 렌취(Verena Rentsch)가 “지금부터 나무를 사람처럼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황량한 땅에서 돌처럼 굳어가리라”고 경고했듯이, ‘생태시’의 정신운동은 자연을 사람의 도구로 취급하는 세대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연을 ‘사람처럼 받드는’ 생명존중의 의식을 대중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자 했다.¹⁸

6. 민중문학에서 생명문학으로

한국에서 ‘생태시’의 형성은 서구에 비해 약 30년 정도 뒤늦게 이루어졌다. 서유럽에서 생태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70년대까지도 한국의 ‘생태시’는 맹아(萌芽)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의 시단에서는 전통적 서정시풍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박두진 등의 시집 『인간밀림』,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등 소수의 작품만이 생태

18. 송용구: 「생태시와 상생의 시학」, 《동강문학》2001. 하반기. 310~311쪽.

의식과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1970년대 들어서도 신경림, 이하석 등 소수의 시인들만이 환경오염의 문제를 작품의 소재로 수용하였을 뿐,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연대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이 안고 있었던 정치·경제의 특수한 조건에 기인한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주도하에 경제개발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산업 발전의 템포가 급속히 빨라졌고, 이에 비례하여 대량의 산업 폐기물들을 무제한으로 강물과 흙 속에 배출하는 행위들이 속출하여 환경오염의 속도는 가속을 얻게 되었다. 당시에 군사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개발'·'발전'·'풍요'의 환상에 도취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의 극복에만 진력했던 까닭에 한국 사회는 환경문제로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1970년대 이후에도 환경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없었다. 1970년 이후의 시대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정경유착·관치금융·독점자본 육성·임금착취·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된 시대였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원천봉쇄되어 고문과 탄압이 끊이지 않던 인권유린의 시대였다. 이러한 현실상황 속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 가열되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적 이념과 경제구조의 문제에 전폭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70년대엔 유신 독재에 맞서서, 그리고 80년대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투쟁이 한국의 현대사를 피로 물들였다. 진보적 지식인들과 하층 민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저항이 80년대엔 국민적 저항의 힘으로 분출되다 보니, 대중은 물론 문인들까지도 환경파괴의 문제로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문학도 민중·민주주의 운동과 맥락을 함께 하였던 까닭에 독자의 눈길을 환경오염의 현장으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많은 작가들

이 민중의 옹호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치적 이념 및 사회구조와 관련된 현실적 투쟁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만큼이나 중요한 생태적 생명의 문제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민중문학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시대상황으로 볼 때 환경오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전적으로 시대상황의 탓으로 돌리기엔 한국 작가들의 행보가 너무도 큰 맹점을 안고 있었다. 환경오염을 낳는 모체(母體)는 다름아니라 부패한 정치현실과 기형적 경제구조이며, 따라서 1970·80년대의 정치현실은 환경문제로부터 결코 분리하여 바라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에서 파생되는 특혜 위주의 개발사업,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여 노동자의 생존권과 자연의 생명권(生命權)을 침탈하는 재벌기업의 횡포, 이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권력자들의 부패 등이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고발해나갈 때, 이러한 저항행위는 군사정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민중문학 작가들이 보여주었던 저항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한국문학의 주류였던 그들이 정치현실과 경제구조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까닭에 저항의 노선이 획일적이었고 저항의 범주도 협소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문인들조차도 정치적 이념과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골몰하게 된 상황 속에서 '생태시'가 문단의 한 조류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군사독재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 사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군사정권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도 다소

완화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환경오염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철권통치하에서 은폐되어왔던 환경오염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 문단에서도 자연의 파괴에 따른 인간 생존의 위기를 경고하는 작품들이 속출하게 되었다.¹⁹

1990년대 들어 '생태시'의 창작과 이에 관련된 문학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하나의 문학운동으로 상승하진 못하였다. 그러나 생명 중요성과 생명 존중의 정신에 바탕을 둔 시창작의 풍토가 조성되었고, 창작과 평론 양 분야에서 생태문제에 대한 문인들의 연대의식이 형성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학의 새로운 풍토를 반영하듯, 1991년에 시인 고진하와 평론가 이경호가 엮은 사회집 『새들은 왜 녹색 별을 떠나는가』(다산글방)의 출간은 '생태시'가 한국 문단에서 현대시의 조류를 형성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이 사회집의 출간이 자극제가 되어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문제를 소재로 다룬 시집들이 지속적으로 문단에 반향을 일으켜 왔다.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種)들 사이에 얽혀 있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김지하의 『중심의 괴로움』·고진하의 『우주배꼽』,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의 위기의식과 자연보호 의식을 일깨우는 고흥렬의 『서울은 안녕한가』·이승하의 『생명에서 물건으로』·강남주의 『흐르지 못하는 강』 등의 출간은 환경문제를 문학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증하기에 충분한 성과물들이었다.

1990년 이후 '생태시' 혹은 환경문학에 대한 국내 문예지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를 추적해보는 것도 '생태시'가 현대시의 중심 경향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길이 될 것이다. 90년대 들어 각종 시전문지에서 '생태시'

19. 송용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시문학사, 2000, 13~16쪽

에 관한 창작과 평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상은 90년대 이전의 시에서 나타나던 사회참여와 저항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인간의 자유와 생존권을 유린하는 지배세력에 맞서 싸우던 90년대 이전의 참여문학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파괴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저항해야만 하는 새로운 참여문학의 유형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개발 위주의 정책, 정치적 이념의 대립, 경제적 현실문제 등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환경 문제가 90년대에 들어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망가진 자연환경을 되살려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문인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도 참여문학의 성격을 변화시킨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7.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시인의 본능적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시인들은 강물에 내려앉는 하늘의 푸른 빛을 노래하고 싶어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만드는 파괴적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시인의 본능적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의 벽에 부딪친 셈이다. 자연미(自然美)에 심취하여 개인적 만족을 구가하던 언어유희의 시대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이상(理想)이 되었다. 이제는 자연을 파괴하는 사회적 원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원인들의 극복을 호소해나가는 의식적 노력만이 시인들에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자연파괴를 야기하는 사회적 원인들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 이러한

20. 앞의 책, 16~19쪽.

원인들에 대한 독자의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생태시의 교육 목적이라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어(詩語)는 자연의 실상을 숨김없이 고백해주는 중인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²⁾

숲이 가정집 문앞에까지
무성히 펼쳐지는
스웨덴의 델라리 지역엔
셀룰로오스의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유한회사와 합자회사가
새들을 몰아내버렸고,
나무들은 시름시름 죽어가며
호수는 목숨을 잃고 까맣게 타버렸다.
정원의 알록달록한 의자 위엔
아무도 앉지 않는다.
모두들 잘 꾸며놓은 개인주택 안에서
창문을 푹푹 걸어 잠그고 앉아 있다.
그들을 고용한 장본인은 유한회사와 합자회사였다.

델라리에 사는 아들 딸들은
자녀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고 있다.
먹여주고 입혀주며
추위와 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안전히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21.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생명주의와 자연」, 《현대시》2000, 2, 210 ~211쪽.

마시는 공기(空氣)를 염려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모름지기 부모의 의무가 아니냐는 불평에 대하여
유한회사와 합자회사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시비에 대해
곧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²²

- 한넬리스 타샤우의 「마실 수 있는 공기」(1977) 전문

독자는 시적 화자의 진술을 읽어 가는 동안, 마치 신문 기사를 읽거나 TV 뉴스의 사건 보도를 시청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화자는 스웨덴의 삼림지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환경오염의 사건을 독자에게 보고하면서 생태파괴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화자는 '셀룰로오스'의 독성(毒性)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남을만한 파괴력을 지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마음놓고 '마실 수 있었던' 공기가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공기'로 변해버린 위기상황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 제2연에서 화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녀들과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염지역에 남아 있고자 하는 부모들 사이에 법정시비의 불상사가 일어났음을 독자에게 증언하고 있다.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자녀들의 절박한 심정이 '부모를 고소하는' 극단적 상황을 낳았다는 것이다. 시의 첫 행부터 마지막까지 화자는 대기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철저히 교란하는 단계에 이르렀

22. Hannelis Taschau: Luft zum Atmen.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ünchen 1981, S. 35~36.

음을 목격자처럼 진술하고 있다.

화자의 예술방식은 철저히 르뽀르파즈의 성격에 부합되고 있다. 본래 르뽀르파즈는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등에서 사용되는 보도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기록자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독자에게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고발하는 논픽션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생태시'를 읽어나가면서 시적 화자(詩的 話者)의 발언이 르뽀르파즈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생태시'를 비문학적(非文學的)인 글로서 단정할 수도 있다. 시에서 은유·상징·운율·리듬 등의 미학적 장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뽀르파즈를 예술방식으로 사용하는 생태시의 경우, 독자들의 상상을 고갈시키고 그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상상에 의한 가공이 결여되어 있고 미학적 기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 독자로부터 아름다움과 감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르뽀르파즈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문학의 유희적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비문학적인 글"인 것이다. 그러나 비문학적인 예술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르뽀르파즈가 1970년대 들어 '생태시'의 중심적 예술방식으로 빈번히 사용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르뽀르파즈는 '생태시'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전용(轉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태시'의 사회참여는 자연환경에 대한 독자의 의식을 각성시키려는 교육적 의도에서부터 출발한다. 르뽀는 이러한 교육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인 것이다. 본래 르뽀르파즈의 기능은 사건의 기록과 보고에 국한된다. 르뽀르파즈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독자의 자율적 판단에 달려있을 뿐, 르뽀르파즈는 대중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교육적 의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유럽의 시인들은 이처럼 교육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운 르뽀

르파즈를 생태시의 영역으로 도입하여 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언술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독자들에게 “비문학적인 글”로서 거부당할 수 있는 논픽션의 유형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시’가 문학의 궤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보고와 고발에만 국한되었던 르포르타즈의 기능을 교육적 기능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인용된 시에서 시적 화자는 유독가스에 오염된 ‘공기’가 ‘새들’과 ‘나무들’, ‘호수’의 생명을 앗아가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독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생태파괴의 상황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독자에게서 자연보호와 생명존중의 의식을 각성시키려는 좀더 능동적인 참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시’는 독자와 대중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표방하기 때문에 정치시 또는 참여문학의 한 갈래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²³

그렇다면 ‘생태시’를 이러한 문학의 유형으로서 규정케 하는 교육적 성격과 현실비판적 성격은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발터 겐하르트(Walter Gebhard)가 생태시를 “항의문학”²⁴이라 명명하였듯이, 생태시의 시적 화자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써 인간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비판의 행위는 시인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독자와 시인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저항 행위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원인들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의 시가 현실개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시인의 비판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생태시’에서 겨냥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회복되는 단

23. 송용구: 「새로운 문학운동으로서의 생태시 · 2 저항문학으로서의 생태시」, 《시문학》 1999. 7. 92~93쪽.

24. Walter Gebhard: Naturlyrik. Von Loerke zur Ö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öpf. München Wien Zürich. 1984. S. 71.

계는 독자와 시인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가 시인의 저항 행위에 연대적 동반자로서 참여하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독자의 의식이 각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가 문명의 급진적 발전에 따른 자연의 쇠락을 직시하면서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 동시대의 현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비로소 시인과 독자의 연대적 저항은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연에 대한 독자의 시대착오적 의식을 변화시키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독자의 비판적 성찰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²⁵

그날 그 도시에 사건이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게 설사와 구토 피부병을 시작했고
임신중인 산모들이 태아를 유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괴기 공포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그 도시에선 현실이었다

나찌는 2차 대전중에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폐놀 주사를 포로들의 심장에다 직접 꽂아
보다 신속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그 폐놀을 재벌 기업이 상수도 수원지에 쏟아부었고
시민들은 즉각 생수를 사먹고 차를 몰고
물을 떠 나르기 위해 인근 산속에서 법석을 떨었다
그건 중산층의 손쉬운 이기심이었다

25. 송용구: 「생태시의 성격과 전개 양상」, 《시와사상》2001, 가을, 212~213.

생후 10개월짜리 갓난 딸애를 가진
염색공장 노동자 김이박 씨
생수 사먹을 여유가 없는 저임금의 노동자
물 뜨러 시외 나갈 승용차 한 대 없는 김이박 씨
공단에서 퇴근해 월셋방에 돌아와
우유 탈 물을 못 구해 찹찹매는 아내를 부여안고
그는 울부짖었다 짐승처럼

“이젠 마시는 수돗물마저 계급적이어야 하나?”²⁶

- 김용락의 「대구의 폐놀 수돗물」 전문

시인은 재벌기업에 의해 강물 속으로 버려진 공장 폐수, 폐놀을 머금고 썩어 가는 강물,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망가지는 인체(人體), 식수를 찾아 전전공공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을 르뽀르따즈 형식을 통해 재생하고 있다. 한넬리스 타샤우의 「마실 수 있는 공기」에서처럼 이 시에서도 르뽀르따즈의 기능은 보고와 고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물이 썩어감으로 인체가 손상되는 사회적 병폐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고발적 행위를 바탕으로 독자의 자연보호 의식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계몽적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르뽀르따즈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일종의 교육적 행위는 ‘생태시’의 현실 비판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독자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계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자로 하여금 사회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자연의 실상

26. 김용락: 『기차소리가 듣고 싶다』. 창작과비평사, 1997.

을 바라보게 하여 독자의 자연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시대와 사회가 급변하여도 자연의 질적(質的) 변화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태도, 자연친화의 전통적 관념을 계승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불화에 대해 둔감한 태도가 '생태시'에서 교화의 대상이 된다. 시인은 독자 스스로 전통적 자연관을 부정하도록 이끌기 위해 르뽀를 사용하여 독자의 시각을 관념적 자연이 아닌 기형적 불구의 자연으로 향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망가진 자연의 실상을 목격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 속에서 독자는 자연과 인간을 함께 병들게 한 원인들이 우리의 사회현실 속에 내재해 있음을 감지하게 되며, 모든 생명과괴의 원인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된다.

독자의 자연관과 현실관이 변화됨으로써 비로소 시인과 독자는 모든 생명과괴적 행동방식에 맞서 공동의 현실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시인과 독자가 연대의식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생태시'의 저항은 문학의 범주를 초월하여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그토록 은밀하고 신속하게
그를 죽여버리다니
도대체 나무는 너희의 원수란 말인가?
새들은 낮설게 변해버린
그들의 터전에서
당황한 듯 이리저리 맴돌고 있다.
새들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몰랐단 말인가?
이제 그들이 마음을 놓을만한

27.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43~45쪽.

서식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소용없게 된 것을 너희는 몰랐단 말인가?
너희는 여왕벌의 씨를 팔려 놓았고
나무의 땅에서 생명을 앗아갔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 그루 나무를
사람처럼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황량한 땅에서
돌처럼 굳어가리라.²⁸

- 페레나 렌취의 「나무는 너희의 원수란 말인가?」전문

생태사화집『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의 서문(序文)에서 편자인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타쉬는 디이터 쉘레자크(Dieter Schlesak)의 견해를 빌어 “생태시는 ‘저항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²⁹고 말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이후 발표된 생태시들이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이어-타쉬가 언급한 “저항”은 생태시의 핵심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낱말이다. 이 ‘저항’은 자연과 인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한 시인의 구체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태시의 ‘저항’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파

28. Verena Rentsch: Ist denn ein Baum euer Feind?.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ünchen 1981, S. 75.

29. P. C. Mayer Tasch: Ö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ünchen 1981, S. 12.

괴하는 사회적 병인(病因)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현실극복의 행위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학적 낙원을 향해 탈출구를 모색하는 변혁운동이다.

생태사화집에서 시인들은 환경과피를 야기하는 병인(病因)으로서 인간의 소유욕과 물신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서구의 시장경제 체제, 대량생산과 과소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성장 제일주의, 정부의 개발 정책과 건설 사업, 경제 논리, 산업재해, 전쟁, 핵개발 및 핵실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무관심, 서구의 합리주의, 낙관적 진보사관(進歩史觀), 인간중심주의 등을 고발하고 있다.³⁰ 이러한 파괴적 원인들에 대하여 독자와 함께 비판의식을 강화해나가며 구체적 현실개혁을 지향하는 까닭에, '생태시'는 정치시 혹은 참여문학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발터 겐하르트(Walter Gebhard)는 '생태시'를 기존의 자연시 내부에서 테마의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유형으로 간주하면서, '자연시'의 전통적 서정성과 '생태시'의 비판적 자연관(自然觀)을 대립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³¹ 그는 자연과피를 야기시킨 인간중심주의적 행위들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생태시'의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여 "항의문학(Protestdichtung)"이라는 이름을 '생태시'에 부여하였다. 또한 마이어-타쉬도 '생태시'의 현실비판적 성격과 사회참여의 기능을 근거로 하여 생태시를 "정치적 문화에 관한 기록물"³²로 정의한 바 있다.

마이어-타쉬가 규정한 것처럼, '생태시'는 자연을 도구와 수단으로 전

30. Ralf Schnell: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S. 304~314.

31. Walter Gebhard: Naturlyrik. Von Loerke zur Ö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rhard Köpf. München Wien Zürich. 1984. S. 71~72.

32. P. C. Mayer Tasch: Ö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ünchen 1981. S. 9.

락시키는 “정치적 문화”의 속성을 가장 재관적으로 기록한 장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생태시의 기능은 기록문이 갖고 있는 보고와 고발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태시는 자연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적 문화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결집시켜 대중의 ‘항의시위(Protestdemonstration)’ ʘ를 유도하고 있다. ‘항의시위’는 마이어-타쉬가 제시한 생태시의 사회적 기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치 및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환경파괴의 행위를 억제해나가려는 시인과 시민들의 연대적 저항 행위이다. 또한 마이어-타쉬는 ‘항의시위’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자의 강연회, 정치가의 정견 발표, 성직자의 설교, 시민의 가두집회 등에서 개발 정책과 건설 사업의 증지를 촉구하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생태시’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생태시’가 생명파괴의 원인을 유발하는 ‘정치적 문화’ 전반에 대하여 ‘항의시위’를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될 뿐만 아니라 ‘항의시위’의 투쟁력을 고취시키는 정신적 단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시위’의 자극제 역할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반자연적 개발 정책과 경제 논리를 향해 비판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선언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생태시’는 생명에 대한 보호의식을 선도하는 교술적 기능을 갖출 뿐 아니라 대중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의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생태시’는 포괄적인 앙가쥬망의 속성을 갖춘 문학인 것이다. 랄프 슈넬(Ralf Schnell)이 1970년대 이후의 현대시를 “손상된 세계를 표현하는 시” ʘ라고

33. ebd, S. 12.

34.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71~72쪽.

35. Ralf Schnell: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S. 314.

명명하였듯이, '생태시'는 예술지상주의에만 묶여있던 언어의 미학을 '손상된 세계'로 끌어내려 새롭게 '미학의 저항'³⁶을 요구한 현대시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01년도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 Post-Doc.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Supported by Korea University Post-Doc. Grant in 2001 year”

36. ebd. S. 314.

〈참고문헌〉

1. 一次文獻

- Enzensberger, H. M.: Die Verteidigung der W lfe, Frankfurt 1957.
Fried, Erich: Am Rand unserer Lebenszeit, Berlin 1987.
Kolbe, Uwe: Vineta, Frankfurt am Main 1998.
Kunert, G nter: Abt tungsverfahren, Gedichte, M nchen&Wien 1980.
Ders.: Unterwegs nach Utopia, Gedichte, M nchen&Wien 1977.
Mayer Tasch, Peter Cornelius(Hrsg): Im Gewitter der Geraden, Deu-
tsche kolyrik 1950 1980, M nchen 1981.
Weyrauch, Wolfgang(Hrsg): Expeditionen, M nchen 1959.

2. 二次文獻

- Gebhard, Walter: Naturlyrik. Von Loerke zur 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 pf, M nchen Wien Z rich, 1984.
Ders.: Oskar Loerkes Poetologie, M nchen 1968.
Goodbody, Axel: kologie und Literatur, Amsterdam 1988.
Kr rich, Otto: die deutsche Lyrik der Gegenwart, Stuttgart 1971.
Marsch, Edgar: Moderne deutsche Naturlyrik, Stuttgart 1980.
Mayer Tasch, Peter Cornelius: 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Mayer Tasch, Peter Cornelius: Umweltbewu tsein und Jugendbewe-

- gung. In: *kologie und Grundgesetz*, Frankfurt 1980.
- Metzner, Ralf: Die Entfaltung des kologischen Weltbildes. In: *Tiefenkologie*. Hrsg. v. Franz-Theo Gottwald u. Andrea Klepsch. M nchen 1995.
- Minde, Fritz: Bobrowskis Lyrik und die Lyrik der naturmagischen Schule. In: *Johannes Bobrowskis Lyrik und Tradition*. Frankfurt am Main 1981.
- Piontek, Heinz: *Deutsche Gedichte der sechziger Jahre*. Stuttgart 1984.
- Schlesak, Dieter: Wort als Widerstand. Paul Celans Herkunft Schl ssel zu seinem Gedicht. In: *Literatur Magazin* Nr. 10/1979.
- Schnell, Ralf: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3. 국내 문헌

- 고진하 · 이경호(역음):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 다산글방 1991.
- 김용민: 『새로운 생태문학을 위한 시도: 에리히 프리트의 사회주의 생태 시』. 《현상과 인식》. 1993. 겨울.
- 김용민: 『생태사회를 위한 문학』. 《현대문학》. 2000. 7.
-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1999.
-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박홍규 역. 민음사 1998.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숲 1999.
- 박상배: 『생태 환경시와 녹색운동』. 《현대시》. 1992. 6.

- 박이문: 「생태학과 예술적 상상력」, 《현대예술비평》, 1997. 겨울.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8.
- 박혜경: 「생태여성주의의 사상」, 《시문학》, 1999. 9.
- 송용구: 「기독교와 생태주의」, 《시문학》, 2001. 7.
- 송용구: 「독일 생태시의 지평」 연재, 《시문학》, 1998. 1~3.
-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 연재, 《시문학》, 1995. 6~11.
-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와 시론」, 《시와사상》, 2001. 봄.
- 송용구: 「새로운 문학운동으로서의 생태시 · 1 리얼리즘으로서의 생태시」, 《시문학》, 1999. 6.
- 송용구: 「새로운 문학운동으로서의 생태시 · 2 저항문학으로서의 생태시」, 《시문학》, 1999. 7.
- 송용구: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창조문학》, 2001. 봄.
- 송용구: 「생태시와 상생의 시학」, 《동강문학》, 2001. 하반기.
-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 송용구: 「생태시의 성격과 전개 양상」, 《시와사상》, 2001. 가을.
- 송용구: 「에리히 프리트의 생태주의 문학」, 《시와사상》, 2001. 여름.
- 송용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시문학사 2000.
- 송용구: 「전통적 자연시에서 생태시로」, 《시문학》, 1999. 11.
-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시문학사 1998.
-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생명주의와 자연」, 《현대시》, 2000. 2.
- 송용구: 「환경과 문학」, 《시문학》, 2000. 10.
- 송용구: 「현대시와 생태주의」, 새미 2002.
- 신덕룡: 「생명시 논의의 흐름과 갈래」, 《시와사람》, 1997. 봄.
- 신덕룡: 「초록 생명의 길 I」, 시와사람사 1997.
- 신덕룡: 「초록 생명의 길 II」, 시와사람사 2001.

-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외국문학》. 1990. 겨울.
- 이진우: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8.
-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 최병현: 『에코포에틱스와 현대시』. 《시문학》. 1999. 7.
- 최영길: 『성서의 녹색 언어』. 가톨릭 출판사 1999.
-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이진우 역. 서광사 1994.
-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3. 2쪽.
-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1989. 2쪽.
-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82. S. 4.
-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3. 212쪽.
- 같은 책. 868쪽.
- 박두진: 『예레미야의 노래』. 창작과비평사. 112~113 쪽.
- 같은 책. 114~116쪽.
- 송용구: 『현대시와 생태주의』. 새미. 52쪽.
- 송용구: 『새로운 문학운동으로서의 생태시 · 1』. 시문학 1999. 6. 102~103 쪽.
- 오토 울리히: 『개발과 기술제국주의』. 《녹색평론》1993. 5-6. 117~133.
- 송용구: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창조문학》2001. 봄. 11~15쪽.
-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외국문학》1990. 겨울. 32쪽.
-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와 시론』. 《시와사상》2001. 봄. 240~241쪽.
- P. C. Mayer Tasch: 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11.

P. C. Mayer Tasch: ebd, S. 11~13.

송용구: 「에리히 프리트의 생태주의 문학」, 《시와사상》2001. 여름. 209~211.

Walter Helmut Fritz: B ume,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75.

송용구: 「생태시와 상생의 시학」, 《동강문학》2001. 하반기. 310~311쪽.

송용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시문학사, 2000. 13~16쪽.

앞의 책, 16~19쪽.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생명주의와 자연」, 《현대시》2000. 2. 210~211쪽.

Hannelis Taschau: Luft zum Atmen,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35~36.

송용구: 「새로운 문학운동으로서의 생태시 · 2 저항문학으로서의 생태시」, 《시문학》1999. 7. 92~93쪽.

Walter Gebhard: Naturlyrik, Von Loerke zur 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 pf, M nchen Wien Z rich, 1984, S. 71.

송용구: 「생태시의 성격과 전개 양상」, 《시와사상》2001. 가을. 212~213.

김용락: 「기차소리가 듣고 싶다」, 창작과비평사, 1997.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43~45쪽.

Verena Rentsch: Ist denn ein Baum euer Feind?,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75.

P. C. Mayer Tasch: 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12.
- Ralf Schnell: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S. 304~314.
- Walter Gebhard: Naturlyrik. Von Loerke zur 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 pf. M nchen Wien Z rich. 1984. S. 71~72.
- P. C. Mayer Tasch: 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kolyrik 1950 1980. Hrsg. v. P. C. Mayer Tasch. M nchen 1981. S. 9. ebd, S. 12.
- 송용구: 『생태시와 저항의식』. 다운샘. 2001. 71~72쪽.
- Ralf Schnell: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S. 314. ebd, S. 314.

송용구

시인. 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독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독일문화 연구소 연구전임교수.

저서: 시집 『풀피리 소리보다 향기로운』, 『별빛 지는 새벽마당에 서면』,

『어머니의 기도』

문학평론집 『현대시와 생태주의』,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생태시와 저항의식』,

역서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등.